

무주읍 상권 활성화 나선다

무주랜드상권 내 '창업·스타·행복점포' 육성 추진... 6월 10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무주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주랜드상권 내 '창업점포', '스타점포', '행복점포' 육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협업화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차별화된 품목과 경쟁력을 갖춘 점포를 발굴·지원해 친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무주랜드상권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거나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에 희망하는 자로, 오는 6월 10일까지 무주읍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랜드상권은 무주읍 상권 활성화

구역인 반딧불시장과 무주읍 전·후 구간 도로 일원 417개 점포를 포함하고 있다. '창업점포'는 창업 아이템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업했거나 기존 상인이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 전환을 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1개 점포를 선정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점포'는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메뉴를 취급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총 2개 점포를 선정해 각각 3백만 원을 지원한다. '행복점포'는 먹거리를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화 품목을 취급하거나 이야기거리를 갖춘 점포 2곳을 선정해 각각 3백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무주군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쇠퇴한 무주읍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반딧불빛 상권 환경개선' 등 9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무주랜드상권 점포 육성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3개 점포가 선정돼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재가 암 환자 방문 건강관리 강화

무주군, 여름철 폭염 대비 맞춤형 간호 서비스·건강 교육 실시

무주군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읍을 포함한 6개 읍·면 주민 가운데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재가 암 환자 236명이다. 대상자 현황은 완치자 143명, 치료 중 환자 90명, 치료 중단 환자 3명으로 집계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오는 6월 26일 까지 5주간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각 가정을 순회하며 환자별 맞춤형 간호 서비스와 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간암 등 암 종류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투약 방법 및 복용 시간 준수 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건강 상태 확인, 간호 처치, 환자 상태에 따른 건강 상담과 전문의 진료 안내 등이다. 보건의료원은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행동 요령과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119와 응급실, 보건의료원 연락처 등도 공유한다. 한편, 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국가검진과 군민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검진은 일반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검진, 학생 검진 등으로 운영된다. 군민 맞춤형 건강검진은 유방암과 폐암, 전립선암, 골다공증, 예비 신혼부부, 외국인 근로자, 난소암 검진 등



으로 구성돼 있다. 유방암 검진은 3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대상 유방 촬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폐암 검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군민을 대상으로 C-T 촬영을 실시한다. 전립선암 검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PSA 혈액검사를 진행하며, 골다공증 검진은 40~64세와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을 지원한다. 예비 신혼부부 검진은 결혼 전부터 출산 전까지 성병 등 11종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검진은 무주군과 MOU를 체결한 국가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 등 4종 검사를 지원한다. 난소암 검진은 4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CA125 혈액검사를 진행한다. 무주군은 앞으로 건강검진 항목 확대와 출산 구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검진 홍보부스 및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군민 건강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판소리 '클래식 심청전' 성황리 개최

예술담은나라 두 번째 공연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담은나라(지휘자 이대정)의 두 번째 공연 '클래식 심청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대표 고전 설화인 '심청전'을 클래식 음악과 판소리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으로 약 200명의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80분간 진행됐다. 전통 판소리의 구성과 정서를 바탕으로 클래식 선율과 합창, 퓨전국악을 접목해 세대 구분 없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공연에서는 심청과 심봉사, 뽕떡 어머니 등 익숙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호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담은나라의 두 번째 공연 '클래식 심청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와 가족애의 의미를 풀어냈다. 한편 장수군 지역대표예술단체의 다 음 공연인 슬림오페라 '미소피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7시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공연 예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상반기 장학금 지급 역대 최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급 규모를 재단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학생 지원 강화에 나섰다. 재단은 '2026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안전을 심의·의결했다

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단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학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상생과 함께 대학 1학년생의 장학금 신청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장수군의 교육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지

역 인재 육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증가한 신청 수요에 맞춰 장학 지원 예산을 적극 확보했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은 총 62억여 원으로 재단 설립 이후 한 학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은 총 67명으로 장학금은 29일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부안 로컬푸드 상생협력 특별 할인전 '호우'

진안군과 부안군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진안-부안 로컬푸드 상생협력 특별 할인전'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직매장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번 할인전은 지난 4월 체결한 '진안-부안 지역먹거리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상호 교류·판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 특별 할인 행사와 홍보를 함께 추진했다. 행사 이후 직매장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행사 기간동안 진안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900만 원 수준에서 1,500만 원대로 증가했으며, 전주호성점도 일 평균 매출액 2,500만 원 수준에서 3,000만 원대로



상승하며 뚜렷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교류 품목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진안에서는 부안의 마른 오징어, 자른미역, 곱창김 등 수산가공 식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부안 지역에서는 홍삼농축액·절편 등 홍삼 가공품과 참쌀유과, 쫄면기류 등 진안의 전통식품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도민체전 성공 개최 위한 협력 강화

진안군은 2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문병량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준비상황 전반과 기관 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대회 기간 선수단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숙박·교통·안전관리 대책과 개·폐회식 운영, 주요 시설 점검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개·폐회식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며 시설 운영 상황과 관람객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 나서

장수군은 지난 27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상황과 배치기관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현장 중심의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장수군을 포함하도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업무분장 및 복무관리 현황 △인사관리부 및 근무상황표 작성 여부 △초과근무 및 연가 사용 실태 △직장이탈·지각 등 불성실 복무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견도 함께 수렴해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